

여름방학 맞아 사찰 공부방 인기

남원 영선사 등용청소년 공부방 "성적보다 불교인재양성이 목표"

여름방학을 맞아 사찰 공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7월 21일~8월 17일 특별 용맹 정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북 남원 영선사 등용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기간 동안 사찰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과 인성교육, 학업공부도 함께 병행할 수 있어 부모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다. 영선사 공부방은 매일 오전 6시에 기상해 예불과 아침공부를 마치고 오후 10시 30분까지 학업공부를 진행한다. 식사시간과 휴식, 청소시간을 제외하면 약 10시간 정도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개인 자유에 의해 진행된다.

영선사 주지 스님 월공 스님이 직접 하루 3시간 영어, 수학, 과학 강의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율학습을 한다. 영선사 공부방은 입소문으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방학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음 학기에 좋은 성적을 거둬 점점 입소

문을 타면서 지원자가 많아졌다. 월공 스님은 "공간적 제약과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 공부방을 이용한 학생들이 다음 해에 또 다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남자는 중학교 2학년, 여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총 15

성적 향상, 인성함양에

학부모들 호응 높아져

전국에서 학생들 몰려

명이다.

월공 스님은 "단기 수련회와 달리 공부방은 좁은 공간에서 개인공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며 "프로그램은 단순히 성적향상을 위한 목적보다 불교를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바로잡고 젊은 불자 양성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4번째 영선사 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이 학생들에게 하루 3시간씩 영어, 수학, 과학 강의를 하고 있다.

했다는 구병민(15·진주남중) 군은 "다른 친구들이 다음 학기 학업을 위해 모두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지만, 학원 공부는 너무 강압적이라 나와 맞지 않는다"며 "스님의 지도에 따라 자유롭게 공부하니 취약과목 점수가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왔다는 박진철(15·파주선유중) 군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강

제적으로 공부를 시킬 때에는 하기 싫었다. 하지만 여기에선 자율적으로 공부하니 학습능률이 더 오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월공 스님은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공부방 운영에 도움을 주셨다. 등용공부방을 통해 불교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람은 없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사회복지관 지역아동 의료비 전달

3000배 철야정진 통해 450만원 후원금 조성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은 8월 1일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고창지역의 아동 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1배 100원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은 4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을 전달 받은 아동 어머니인 김모 씨는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아이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생각에 더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다"며 "모아주시는 후원금으로 아이가 속히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의료비 전달식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진행된 3000배 철야정진기도행

사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개관 이래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전달식에서 올해는 2명의 지역아동에게 총 4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도완 스님은 "이번 의료비 전달식은 돈을 전달한다는 의미 그 이상의 값진 것으로 아동들과 그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정성들여 모은 마음이 더 큰 선물이 것이다"며 "지원금이 어린이들에게 소중하게 쓰이길 바라며, 보이지 않는 더 큰 응원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000배 철야정진 모금행사는 매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아를 위하여'란 슬로건 아래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진행됐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이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참가 학생들이 직접 제례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하고 있다.

호남지역 대중강좌로 불교열풍 불어

법륜 스님 '즉문즉설', 지역불교 희망의 메시지

그동안 불교대중강좌가 많지 않던 광주 전남지역에 법륜 스님 특강 열풍이 불면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을 비롯한 전남일대 농촌지역에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연이 개최됐다. 지역 내에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스님의 강좌가 진행되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법륜 스님의 강연은 지난 2월 22일 광주 시청 강연을 시작으로 화순, 광양, 보성, 목포, 나주, 곡성, 담양, 무안, 순천, 영광, 영암 등에서 진행됐다. 스님의 강연에는 항상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4~5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작은 군소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강연이 이뤄지는 장소는 300석 규모에 불과하지만 참석인원은 2배 가량이 훨씬 넘는다. 대체로 군소지역에 대중불교 강좌가 열린 적은 전무하다.

최란 광주 정토회 총무는 "강좌가 종교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나 함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다 보니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것 같다"



법륜 스님의 강연이 지난 2월 22일 광주시청 강연을 시작으로 화순, 광양, 보성, 목포, 나주, 곡성, 담양, 무안, 순천, 영광, 영암 등에서 진행됐다.

고 밝혔다.

호남지역은 이를 계기로 불교의 새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역행사 참여와 지역불교를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 사찰에서 신도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 및 법회가 개설돼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호남 농촌지역 불교계는 기존 신도들이 타 종교로 개종하거나, 사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도도 구성하기 힘들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직면했다. 때문에 다양

한 대중법회 강연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회와 강연을 열고, 새로운 신도를 맞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또한 지역민들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륜 스님의 강연은 지역불교에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한편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가을에도 100회의 강연이 진행된다. 광주전남지역은 강진, 고흥, 여수,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광주 등 12군데의 시(市), 군(郡)에서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주말마다 '내비튀' 콘서트 개최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여름휴가를 맞아 주말마다 '나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8월 18일에는 시인 신현수와 김용진, 8월 25일에는 풍류피아니스트 임동창씨가 이야기 손님으로 나선다.

금산사 내비튀 콘서트는 여러 관계 속에 놓여 있는 '나'를 1년에 한번쯤은 편안하게 놓아주는 의미의 템플스테이로 특별 게스트를 초청해 일감 스님과 함께 이야기마당을 꾸미며, 휴식을 위해 여름 산사를 찾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금산사 관계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려 들지 않고 가만히 '나'부터 내비 두면 바로 이것이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전하고자 하는 우리 일상의 가치다"며 "금산사는 템플스테이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8일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의 '가슴뛰는 청춘을 위해'를 시작으로 8월 4일 의사 서전석, 8월 11일에는 가수 조성일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름학교에서 '주인공' 깨닫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우리 do' 열어

언제나 아이들의 손에는 부모가 만들어 준 일과표와 게임기만 있을 뿐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 최근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해월)은 8월 5일~7일 '우리 do'라는 주제로 특별한 어린이 여름학교를 개설했다. 이번 여름학교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아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행사는 입제식을 마치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스스로 하되,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특히 서로 화합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좋은 습관을 배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12·서울도성초) 군은 "직접 음식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미션을 진행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도 제명 공고

한국불교조계종 중정

성명 : 박우열 법명 : 정암 당호 : 법산

위 박우열 정암은 봉자암자당대사회자대선사의 수법 제자로서, 지난 6월 16일 김해 불조사에서 만옹도일사에게 건당 입실 하였다.

이는 부처님(아비)을 바꾸고, 조사님께 역적질을 한 것이다. 이는 부처님을 배반한 조달(데바달다)이며, 예수를 판 유다다. 또한 한국불교의 전법에 있어서 전통과 질서를 파괴한 행위이다.

따라서 본 문도회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암을 문도회에서 제명하면서,

1. 문도회에 관련된 모든 비석에 정암 박우열은 부처님(아비)을 바꾸고 조사님께 역적행위를 한 자로 기록하여 천추만대에 승가의 교훈으로 삼도록 한다.
2. 문도가 발행하는 모든 서적에, 정암 박우열을 조달과 유다와 같은 자 라고 기록하여 한국불교 전법의 전통과 질서를 확립한다.
3. 제천 통도사에 세운 용성조사 사리탑비를 자진 철거하도록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여법한 산문협약에 의하여 추후 조치토록 한다.

용화세존 3039년 남전열반 2556년 단기 4345년 서기 2012년 7월 28일

봉암대희대선사 문도회

문 장 : 보산당 법 광
부문장 : 남산당 청 암
총 무 : 해산당 해 료

관산당 원 당 태화당 가 산 화산당 월 인
현산당 지 현 미산당 천 강 홍산당 현 불
정산당 청 봉 엄산당 지 엄 대산당 법 정